

표준 제/개정 및 폐지 현황

1. 단체표준 제/개정 및 폐지 현황

구분	제정	개정	폐지
자체개발	240	59	30
국제표준번역	30	11	5
영문표준	110	17	4
기술규격	1,051	19	0
계	1,431	106	39

2. 2010년 12월 단체표준 제/개정 목록

[2010. 12. 23]

No	표준번호	TTA 표준명
1	TTAE.IE-802.16mEMD	휴대인터넷(IEEE 802.16m 와이브로)의 무선접속 규격에 대한 성능평가방법(EMD)
2	TTAE.IE-802.16mSDD	휴대인터넷(IEEE 802.16m 와이브로)의 시스템 기술 문서 (SDD)
3	TTAE.IE-802.16mSRD	휴대인터넷(IEEE 802.16m 와이브로)의 시스템 요구사항 (SRD)
4	TTAE.IE-802.10ay	가상 브리지 LAN 개정 10 : 프로바이더 백본 브리지 트래픽 엔지니어링
5	TTAE.IE-802.21	매체독립 핸드오버 프레임워크 (IEEE 802.21 MIH)
6	TTAE.IE-802.3-2008-section2	CSMA/CD 접근법 및 물리계층 기준 2장: 100BASE-T와 100BASE-X
7	TTAE.IF-RFC2544	네트워크 상호연결 장치에 대한 벤치마킹 시험방법
8	TTAE.IF-RFC2647	방화벽 성능 벤치마킹에 대한 용어

⋮

3. 2010년 12월 단체표준 폐지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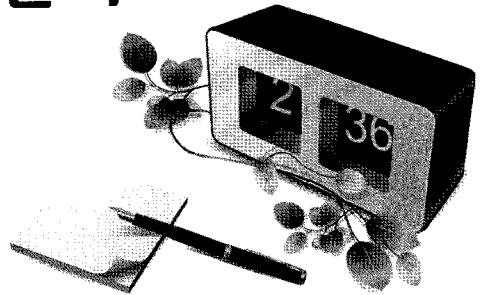
[2010. 12. 23]

No	표준번호	TTA 표준명
1	TTAE.IT-Y2012	NGN 기능 요구사항과 구조
2	TTAS.KO-06.0100	위치기반서비스를 위한 기능 인터페이스 Stage 2 : 디렉토리서비스
3	TTAK.KO-10.0293	법정부 기술참조모델 1.0
4	TTAS.KO-12.0001	부가형 전자서명 방식 표준 - 제2부 : 확인서 이용 전자서명 알고리즘
5	TTAS.KO-12.0002	정보보호기술 전문 용어 표준
6	TTAS.KO-12.0004	128비트 블록암호알고리즘 표준
7	TTAI.KO-12.0035	홈네트워크를 위한 보안기술 프레임워크
8	TTAS.KO-12.0040	64비트 블록암호알고리즘 HIGHT

⋮

※ 이외의 개정된 단체표준 제/개정 전문은 TTA홈페이지(www.tta.or.kr/자료마당/자료검색/표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 ICT국제표준화전문가 주요활동 결과



1. 전문가 지원 현황

기구명	회의명	전문가 참여(명)	기고서 제출(건)	분야	
CJK&NID	UNIOT WG& USN-WG	1	0	BcN	
FSAN	Las Vegas Meeting	1	0		
IEEE	P1904. WG	1	1		
IETF	79차 회의	1	2		
ITU-T	FG on Smart Grid	2	3		
	SG13 제8차 FG-FN	2	3		
	SG16 WP2	1	1		
	SG2	2	2		
	SG5	2	1		
OMA	Parlay REST Interim	1	0		RFID/USN
ITU-T	FG-FN 8차	1	0		
	SG5	1	1		
	FG Cloud	2	2		
	IPTV-GS I	1	1		
JTC1	SC32 WG Interim meetings	1	2	디지털콘텐츠/SW	
	OMA	WG Meeting	1	1	
	OMG	Technical Meeting	1	1	
	ITU-R	SC	1	1	방송통신융합
	ITU-T	SG9	1	1	
3GPP	RAN Plenary Meeting	1	1	이동통신	
	RAN WG1 63th	1	2		
	TSG RAN WG2	1	0		
IEEE	802 Plenary	1	1		
ITU-R	WP 5B	1	0		
	WP3K	1	1		
WiMAX	Forum Member's Conference	2	7		
WirelessHD	Consortium Osaka Meeting	1	1		
WWRF	#25	1	1		
Zigbee	Alliance Member Meeting	1	1		
ABC	ABC2010	1	0	정보보호	
ITU-T	SG17	6	16		
APT	4th APG	6	9	표준화정책	
	제34차	1	0		
IEC	IARU Region 3	2	1		
합계		52	65		

2. 주요내용

구분	표준화 회의	회의 의제	주요 쟁점 사항	국내 대응안	참여 전문가
이동 통신	WiMAX Forum Member's Conference (11.01-11.07 미국 달라스)	IMT-Advanc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iMAX VoIP 음성서비스 기능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논의 • WiMAX M2M 서비스스를 위한 서비스 및 네트워크 요구사항(Stage 1 규격) 승인 • 새 Work Item(BS/WFAP를 이용한 Local Routing, WiMAX P2P 서비스, WiMAX 반송파 집적기술, 단수 사업자 의 WiMAX-LTE 구축방안) 논의 • WiMAX Forum SPWG 사업자 설문 결과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iMAX M2M 규격에 대하여 국내에서 시범 서비스 중인 u-Health, 버스정보시스템, 와이브로 원격결제 시스템을 use case로 반영해 WG 내 승인완료.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서비스가 진행될 경우 해당 솔루션을 타사로 해외에 제공해 국내 사업자 및 제조사들이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 • WiMAX 음성 서비스의 경우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인터넷 전화에서 사용되는 음성코덱을 단말에 대하여 의무사용하는 코덱으로 반영하여 추후 와이브로를 이용한 이동전화 사업기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통신로 인하여 대한 정부 정책에 와이브로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단말을 통하여 데이터 사용량이 폭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신 기술 중 KT에서 제안한 WiMAX P2P 서비스에 대한 과제를 제안했으며, 차후에 있을 SPWG Plenary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 	황정우(KT) 외 1인
	IEEE 802 Plenary (11.08-11.12 미국 달라스)	802.21 TG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EEE 802.21 Single Radio Handover TG(Task Group)는 다중 모드 단말의 이기종 액세스 네트워크 간 핸드오버를 최적화하기 위한 표준 작업을 담당하는 표준 그룹으로 2010년 1월 최초 공식 회의 를 가졌음 • 이번 회의에서는 Inter-RAT Handover 표준화 현황 및 802.21c TG Proposal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TRI, Huawei, China Mobile 이 공동의 기고를 통하여 IEEE 802.21c TG 표준을 진행하고 있음 • WiMAX 및 3GPP 표준화의 큰 프레임워크에서 필요한 요소 기술을 추출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표준 특허 선점이 필요하며, 해당 내용을 표준화와 연계 진행해야 함 • 최근 스마트폰의 폭발적 도입으로 인하여, 무선 데이터 네트워크의 증설 및 다양한 무선 네트워크(무선랜, 와이브로, 셀룰라) 간 연동 이슈가 재차 부각되고 있음 • 이기종 네트워크 간 핸드오버를 최적화하기 위한 IEEE 802.21c 표준 기술 사항이 시장에 도입될 경우 관련 산업 분야가 매우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지정훈(ETRI)
	ITU-R WP3K (11.10-11.19 이탈리아 시칠리아)	전파특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U-R P.1411 권고(육외, 단거리 무선채널 전파특성) 개정 논의 • ITU-R P.1238 권고(육내 무선채널 전파 특성) 개정 논의 • ITU-R P.1816 권고(육외, 단거리 무선채널의 시간-공간적 전파특성) 개정 논의 • ITU-R P.1410 권고(저상방송, 고정이동 서비스 전파예측) 개정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번 3K 회의의 기고서는 모두 한 중 일에서 제출되었으며 한국에서는 5개의 기고서를 제출 하였음 - 최근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따라잡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며, 금번 회의에서 이러한 노력이 확실하게 나타났으므로, 이동통신 강국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WP 3K의 전파모델링 기술은 이동통신 시스템 설계 및 성능 분석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기술이며, 그 산업적인 파급효과가 매우 큼 	백정기 (충남대)
표준화 정책	APT 4th APG (12.13-12.18 중국 홍콩)	표준화정책 및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HF(30-300MHz) 대역에 무선탐지업무용 주파수 분배 및 규정 검토 • 3-50MHz 범위에서 해수면 관측 레이다용 주파수 분배 검토 • 15.4-15.7GHz 대역 무선탐지업무 주파수 분배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련된 Draft CPM 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APT 공동입장 제안 외에도 CPM 문건 수정안을 차기 APG에 기고할 예정 • 국립해양조사원 등 해양 레이다 관계 기관의 수요를 고려해 적정 대역의 분배는 지지하되, 국내 연구수행 결과 도출된 20MHz 이하 대역의 경우, 관계기관과의 공동 시험을 통한 분배 가능성 추가 연구 • 외제 1.3(UAS 아수) 및 1.25(MSS 아수)와 연계하여 국내 입장 결정 후 국제회의 대응 • 15.4-15.6GHz 대역 레이다 운용 간섭으로부터 국내 운용 시스템의 보호 필요 • 3-50MHz에서 해수면 관측 레이다용 주파수 분배 관련, 일본 등 '국제 등록' 조건의 1순위 분배를 원하지 않는 국가들과의 입장차 조율 • 15.4-15.7GHz 대역의 항공기 레이다 운용 전파간섭으로부터 기존 업무 보호 	임진우 (한국전파진흥원) 외 5인
BcN	ITU-T SG16 WP2 11.29- 12.03 (미국 라이메더 할)	멀티미디어 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층 고차 설계방법 표준화의 타당성 검토 • 차세대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시그널링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선/이동 환경에서 통신사업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멀티미디어 서비스 품질을 최적화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계층고차 설계 기법에 대한 표준화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음 • 서비스 품질 및 체감 품질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에 계층고차 설계 기법의 표준화를 위해 관련 표준화 기구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추진함 • 제안한 AL-FEC 기법은 기존의 H.323 Annex I(Communication over error-prone channels)의 내용과 관련이 있으며, 추후 이 Annex I의 내용을 검토한 후 향후 표준화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3GPP LTE 시스템을 위한 QoS 매핑 시 IP Precedence bits 보다는 널리 수용되고 있는 DSCP를 이용하여 매핑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차세대 멀티미디어 시스템(AMS)을 위한 시그널링 절차를 보여주는 기고 내용이 전체 동작을 이해하는데 활용 가능함 • AMS에서 컨테이너 간의 시그널링, 컨테이너와 서비스 노드 간의 시그널링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AMS에서 애플리케이션 핸드오버 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정선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구분	표준화 회의	회의 의제	주요 쟁점 사항	국내 대응 전략	참여 전문가
BcN	ITU-T FG-FN (11.29-12.03 슬로베니아 루블랴나)	미래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 네트워크 비전 문서의 완성과 네트워크 가상화, 에지 세이빙 등의 핵심 결과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ETRI에서도 미래네트워크 테스트베드를 개발하고 있으면 관련 프로토콜의 연구 진행 중. 국내 학계도 포럼을 결성하고 미래네트워크에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기술의 확산에 주력. 그러나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관련 산업계의 요구에 부여하는 표준화에는 적극적인 참여가 없는 실정. 기업의 장비 개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실질적인 미래네트워크 표준화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표준화 반영이나 표준화 방향의 파악이 중요함 이번 회의는 미래네트워크 핵심 개념인 비전이 완성됨에 따라 에지 절약과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에 대한 권고와 앞으로의 표준화 계획을 토의, 커리어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에서도 관련 프로토콜의 국제 표준화의 진행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최진식 (한양대) 외 1명
디지털 콘텐츠/ SW	JTC1 SC32 WG Interim Meeting (11.15-11.19 미국 캘리포니아)	메타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ISO/IEC JTC 1/SC 32 WG2는 데이터 관리 및 교환을 위한 메타데이터에 관한 분야에 대해 표준화를 진행. 최근 데이터의 관점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슈화 하고, 그에 필요한 기술 및 표준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온톨로지 관리 및 등록을 위한 기술 개발과 표준 제정에 중점을 둠 ISO/IEC 20943: Part 5와 Part 6에 대하여 MDR에서의 의학적 사상과 온톨로지 생성에 대한 내용 검증 ISO/IEC 11179: Part 3 edition 3의 내용 수정과 수정 사항 검증 ISO/IEC 19763: 전체적인 Part에서 온톨로지의 등록, 관리 및 교환 그리고 서비스 제공과 교환을 위한 메타모델 내용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적으로 3개의 표준 연구로 나누는데 한국은 ISO/IEC 20943-6, 미국은 ISO/IEC 11179-9, 일본과 중국은 ISO/IEC 19763에 중점을 두고 각자 연구에서 표준화를 위한 기고서를 투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요구함 - 한국: ISO/IEC 20943-5와 ISO/IEC 20943-6의 Working Draft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요구. 다음 단계인 PDTR로 가기 위해 기고서 투고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요구 함 - 미국: ISO/IEC 11179-3 ed.3 FCD에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전문가들로부터 받은 의견들 (300여 개)에 대해 이를 수정하고 수정사항에 대한 내용 토론 - 일본: ISO/IEC 19763의 온톨로지 레지스트리와 코어모델과 기본 사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요구 - 중국: ISO/IEC 19763의 서비스 등록과 서비스의 역할, 목적 등의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그동안의 의견들에 대한 수정 사항 및 추가 의견 요구 현재 미국은 ISO/IEC 11179-3 ed.3에 대한 표준화 연구가 진행 중이며 이를 표준화하기 위해 노력 중. ISO/IEC 20943-6은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ISO/IEC 11179-3 ed.3에 기반한 기술이므로 미국에서는 ISO/IEC 20943-6의 표준화 진행 속도를 늦추려는 입장. 이에 한국은 너무 ISO/IEC 11179-3 ed.3의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ISO/IEC 11179-3 ed.3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표준화 연구를 진행해야 함. ISO/IEC 20943-5는 중국에서 진행 중인 연구/IEC 19763-9와 일본에서 진행 중인 19763-10의 연구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음. 따라서 세 국가의 연구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ISO/IEC 20943-5의 연구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 	백두권 (고려 대학교)
	ITU-T SG17 (12.08-12.17 스위스 제네바)	X.1195 -5 표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IPTV 서비스와 콘텐츠의 보호기술 간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규격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한 수정본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번 회의를 통해 consent된 X.1195 Service and Content Protection Interoperability Scheme 표준은 IPTV의 콘텐츠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CAS 기술과 DRM 기술 간 호환성을 손쉽게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향후 IPTV 서비스를 활성화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번 회의의 주요 쟁점은 독일과 일본에서 제기한 Scope 부분을 제외하고 특이한 내용은 없었음 - 독일은 Scope에 포함된 "This recommendation does not include any other legacy approach to solve SCP interoperability in X.1191." 문장을 이번 수정안에 굳이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일본 대표단에서 삽입을 요청하여 추가한 것이라 설명을 했음. 한국, 일본, 독일 대표단이 토의를 통해 이 문장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 	강호갑 (다얼업인 사이드)
RFID/ USN	ITU-T SG5 (11.23-12.01 스위스 제네바)	RFI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대폰 범용충전장치에 관련한 L.1000 개정 및 L.1000 후속작업인 L.Adapter Phase 2, 범용 배터리 표준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1000개정 관련해서는 한국, 미국, 삼성, 노키아가 반대입장이었으며, GeSI 멤버 중 이탈리아 텔레콤, 프랑스 텔레콤이 적극 추진하고 TSB가 이를 강력하게 지지함 이번 회의에서 L.1000개정을 강력하게 반대했으며, 1월부터 원격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우리나라 산업계와 정부의 추진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후속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범용 배터리 표준의 경우는 우리나라 모바일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차기 회의에 대한 대응책으로 산업계의 입장을 고려한 우리나라 추진방향이 결정되어야 함 L.1000개정과 범용 배터리 문제 모두 모바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이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업계는 현재의 표준 진행방향이 산업의 발전방향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음 	김은숙 (ETRI)
정보 보호	ITU-T SG17 (12.08-12.17 스위스 제네바)	정보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러시아의 NCNS 신설 워크아이템 제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러시아의 NCNS 신설 워크아이템 제안 - 러시아는 특별 회의에서 PP 결의안에 NCNS 항목이 존재하고, 러시아 연방, 아랍 연방, 그리고 러시아 등의 지원으로 이 워크아이템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미국 등은 여전히 현재 범위가 기술적 측면이 아니고, 규제적 측면이며, 기존의 X.cyber(X.1500)과 중복될 수 있어서 신설을 반대하나, 지난 회의에서 합의한 template를 채워서 다시 심의할 것을 주장함 - 우리나라는 대표단 회의에서 러시아의 제안이 우리의 실정과 맞지 않은 측면과 차후 표준화 추진 상황을 고려해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 회의에서는 문제점만을 언급하고 분명한 입장 표명을 유보함 - 다만, 향후 표준안의 내용을 분석해 국내 실정에 맞지 않을 경우 적극적인 의견제기 필요 	임홍열 (순천향 대학교) 외 5인